

# Adler의 허구적 목적(fictional finalism)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및 적용

백 현 숙\*

## 국문초록

본 연구는 Adler 이론에 근거한 허구적 목적의 함의를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구체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Adler는 초기기억에서 비롯된 왜곡된 사적논리와 허구적 목적이 한 개인의 부적응적 생활양식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허구적 목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소명적 목적의 삶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명적 목적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존재적 가치대상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육신적 삶을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기억조각 여행을 통해 자신의 허구적 목적의 실상과 당면문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를 이해,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원리와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여러 정황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소명적 목적을 깨닫게 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허구적 목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상담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 접근방안을 실제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허구적 목적, 소명적 목적, 생활양식, 초기기억, 사적논리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30일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조교수

## I. 여는 글

현대 심리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Adler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 해 전 기시미 이치로(2014)의 저서인 『미움 받을 용기』를 계기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심리이론 또한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dler의 이론이 이 시대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는 데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이론임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점을 가진 Adl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대학에서 Adler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Adler 기반 연수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교육 및 상담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격려 기술』, 『아들러와 함께 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을 둔 초기 회상』, 『불완전할 용기』 등 국내외에서 많은 역서나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노안영, 2016; 기시미 이치로, 2014; Clark, 2017; Dinkmeyer & Losoncy, 2012; Dreikurs, Grunwald, & Pepper, 2013). 기독교상담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Adler 이론이 지닌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의 관점, 그리고 다양한 상담기법들은 여러모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Adler 심리이론을 기독교상담적 차원에서 고찰 또는 적용을 시도한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김준수(2016: 89-94)는 ‘아들러의 생활양식 분석과 기독교적 평가’라는 연구를 통해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그의 인간관, 하나님 개념, 생활양식 등을 고찰하였고, 김필진(1997: 17)은 ‘아들러 심리학과 목회상담’이라는 연구를 통해 아들러 심리이론과 목회상담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ler의 이론 중 ‘허구적 목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기독교상담적 고찰과 적용을 시도하였다.

Adler는 인간을 각자의 일관성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애 초기의 경험, 즉 8세 이전에 경험하는 일들을 토대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인생스타일이 형성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인식의 틀, 즉 그 사람의 주관적 신념과 가치관 및 인식 등은 고유의 사적논리(private logic)와 허구적 목적(fictional finalism)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은 향후 개인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삶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고 보았다(김필진, 2001; Hall & Lindzey, 1975; Stein, 2005). 본 연구에서 Adler의 허구적 목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초기기억을 통해 허구적 목적을 탐색하는 과정 자체가 내담자로 하여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역동이나 움직임, 욕구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고, 자신의 숨어 있던 내면의 존재를 새롭게 만나게 함으로 상처의 치유와 내적 통합을 통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허구적 목적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개념은 사회적 관심이다. Adler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았다. 자연계에서 신체적으로 열등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회를 형성하는 선천적 경향성을 갖게 되며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지각하며 소속감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지에 따라 선천적 경향성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인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에,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척도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부정적 초기 기억과 경험들을 통해 왜곡되고 부적응적인 사적논리와 허구적 목적을 형성하게 되었다면, 아德勒가 말하는 자기중심성의 틀에 갇혀 부정적인 삶

의 목적에 의해 부적응적인 생활양식과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필진, 2007; Adler, 2015).

기독교상담은 단순히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 치유, 변화나 성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김성환, 2006; 김성환, 2014). 그러므로 어린 시절과 성장과정에서의 상처로 인해 왜곡된 허구적 목적이 형성된 그리스도인 내담자가 있다면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적응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는 데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방향으로 삶의 목적과 생활양식과 태도가 변화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허구적 목적의 틀에 갇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담자로 하여금 그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적 목적(calling finalism)을 이루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기독교상담적 원리와 구체적 접근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들러 심리이론의 상담적 지향점과 허구적 목적의 개념 및 상담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소명적 목적 중심의 삶으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돕기 위해,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적 목적의 의미를 논의하고 소명적 목적 중심의 삶으로의 연계적 전환을 돕는 상담방안을 모색하고, 실제의 상담사례를 통해 구체적 상담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명적 목적의 이슈를 다루므로 내담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독교 신앙적 배경이나 근거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그렇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 임상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 II. 펴는 글

### 1. Adler 심리이론의 상담적 지향점

Adler는 인간을 창조적이고 능동적 행위자라고 간주하면서 자유의지인 선택을 중요시한다. 인간은 나뉠대로의 독특한 인지적 구조를 갖는 창조적 존재로서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완성을 꾀하는 존재이며 개인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주관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또한 Adler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공동체 의식을 지칭하고 있는 사회적 관심이라는 개념의 제시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희노애락의 감정을 함께 나누며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 선천적인 잠재력인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출생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관심이란 소속감과도 연관되는 개념으로 타인과의 협동, 관심, 사회적 관계, 집단에의 동일시, 배려 등 타인을 배려하는 관심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는 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기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인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는 보다 큰 의지를 가질 때 사회적 관심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김미란, 2006; 김소영, 오미경, 2016; Hall & Lindzey, 1975).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공감의 개념과도 연결이 된다. Adler 학파에서는 사회적 관심이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들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한 개인의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발달한 사람은 건강한 행복감을 지니고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 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사람은 부적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절망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

아가게 된다는 것이다(김필진, 2007; Hjelle & Ziegler, 1998; Hjelle & Ziegler, 2006).

잠시 살펴 본 것처럼, Adler는 인간을 창조적 능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주관적 존재로 이해하였다. 또한 Adler는 건강한 인간이란 사회적 관심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Adler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초기기억에서 비롯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이해하며 왜곡된 삶의 목표를 수정하기,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돌아보는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부적응적이고 왜곡된 허구적 목적의 실체를 발견하고 허구적 목적에서 빠져나와 보다 적응적 목적을 갖게 되는 것과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친사회적 가치 지향의 삶을 사는 것이 Adler 상담에서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다. Adler가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은 내담자의 허구적 목적을 적응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독교상담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김준수(2016: 89-92)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회복을 통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삶, 즉 자신에게 관심과 초점을 두었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삶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에게 초점을 둔 이기적인 인생목표에서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인생 목표로 전환하도록 하여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를 강조한다. 기독교상담은 단순히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해결이나 삶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Adler의 허구적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된 소명적 목적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2. 허구적 목적의 기독교상담적 이해

### 1) 허구적 목적의 기본 개념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허구적 목적(fictional finalism)은 아동기 초기부터 발달하며 개인의 성격 통합 및 모든 행동 이해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형성된 산물로 Adler의 주요개념, 즉 열등감, 열등감과 보상기능, 우월성 추구 노력, 무의식과 창조적 자아의 요소 등이 포함된다. Adler는 인간이란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기에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현재의 행동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동의 궁극적 이유도 알려준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목표를 알게 되면 심리학적 현상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타고난 성질과 그것의 형성 혹은 다르게 형성된 이유, 성격 특성들, 느낌과 감정들, 논리나 도덕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춘경, 2018; Dinkmeyer & Sperry, 2000).

허구적 목적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현실 검증이 어려운 가상적인 것으로 각 개인의 태도와 환경에 의해 설정된, 완전히 허구적인 것이다. Adler는 각 개인이 스스로의 목표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 방향 내에서 움직이고 성장을 향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표 추구하고 달성의 욕구는 한 방향에서 실패하게 되더라도 다른 방향에서의 성공을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Adler의 중요한 개념인 허구적 목적이다. Adler에 의하면 허구적 목

적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로 그들이 추구하는 우월성은 허구적 목적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저마다의 창조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허구적 목적이 갖는 의미는 개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허구적 목적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자신을 해롭게 할 수 있다(McAdams, 1988; Smith, 2014). Adler는 정상인인 경우 이러한 허구의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실 직시가 가능하지만 정신증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한다.

## 2) 허구적 목적과 생활양식

생활양식이란 개인이 인생 초기에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조직, 그것을 예언하고 통제하기 위해 발달시켜 온 개인의 인지조직도로, ‘삶을 향한 개인의 기본적 정향(person’s basic orientations)’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행동이 일관성 있고 목적지향적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는 개념의 표현이다. Adler는 개인의 인지도식에 대해 통각도식(schema of apperception)이라는 더욱 종합적인 개념을 사용한다. 통각도식이라는 주관적 틀 안에는 개인의 사고, 감정, 가치관 등이 포함되며 인간은 자신만의 통각도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인 관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Ansbacher & Ansbacher, 1972; Corey, 2017; Dinkmeyer & Sperry, 2004).

생활양식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게 되므로 개인의 성격적 특질과 행동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개인은 각각의 방식대로 어린 시절 형성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들이 대처하는 생활양식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신념에는 4가지가 있는

데, 첫째는 자아개념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념들이며, 둘째는 자기 이상,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념이고, 셋째로 세계에 대한 이미지는 세계와 인간, 자연에 대한 확신 또는 세계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이며, 넷째는 윤리적 신념으로 개인이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오익수, 2006; Ansbacher, 1967; Mosak, 1971; Sweeney, 1998).

Adler 학파에서는 일단 형성된 생활양식은 일반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지만 개인의 창조적인 힘은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탐색, 해석하고 재정향에 초점을 둔다. 생활양식은 개인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성 수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는데 낮은 사회적 관심과 낮은 활동수준으로 인해 자신과 사회에 무의한 생활양식 유형에는 지배형과 획득형, 회피형이 해당되고, 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수준을 보이는 생활양식 유형에는 사회적 유용형이 있다. 개인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면 왜곡된 또는 자기패배적인 시각,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엿볼 수 있으므로 생활양식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아관과 타인관, 그리고 세계관 등을 체계화할 수 있다(Adler, 1969; Ansbacher & Ansbacher, 1982; Hjelle & Ziegler, 1981; Lundin, 1989; Schultz, 1990; Sweeney, 1998).

이러한 생활양식에 의해 개인은 삶 전체에 대한 허구적 목적을 형성하고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우월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 인생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을 내리거나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초기 기억과 가족구도, 출생순위, 꿈 분석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초기기억은 Adler 이론의 독특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목적에 일치하는 기억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상하는 투사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양식 탐색에 있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백현숙, 2018; Mosak & Pietro, 2006).

### 3) 허구적 목적과 초기기억

초기기억은 한 개인의 자신과 타인 및 삶에 대한 지각, 갈망 그리고 삶에 대한 예견의 간략한 틀을 제시해 주는 ‘인생의 이야기’로, 초기기억에서 나타난 행동, 목표, 정서는 삶의 전반에 걸쳐 반복된다. 이러한 초기기억에는 현재의 사적 논리, 기대, 목적 등이 반영되므로 현재의 마음 상태는 초기기억의 영향을 받게 된다(Corey, 2008; Rule & Bishop, 2006).

Adler는 개인의 초기기억이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계서적인 정보로, 초기기억들 중 ‘우연한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인간의 모든 기억은 우연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들이라는 말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부합하는 기억들만 선별하여 선택하기에 기억의 사실 유무보다는 그 기억이 상징하는 바와 개인이 초기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기억의 핵심은 개인의 어린 시절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정보인 동시에 현재 자신과 타인,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양식이 달라지면 초기기억도 바뀌며 동일한 초기기억일지라도 기억과 관련한 생각과 감정도 달라진다(Adler, 2015; Dreikurs, 1967).

초기기억 관련 연구에서 어린 시절 가족에 관한 긍정적 초기기억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유용한 생활양식이 나타난 반면에, 비행 청소년들의 초기기억에서는 심각한 규칙파괴와 자해, 신뢰감이나 통제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들의 부적응 또는 품행장애, 신경증적 성격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초기기억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익수, 2006; Bruhn & Davidow, 1983; Chandler & Willingham, 1986; Clark, 2002).

각 개인은 선별된 초기기억을 통해 허구적 목적을 갖게 되며 삶의 궁극적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 검증이 어려운 허구적인 것이다. 아德勒 심리치료에서 개인의 초기기억에 대한 의미 있는 개입을 통해 초기기억의 재해석을 도움으로써 내담자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Pomeroy & Clark, 2015).

#### 4) 허구적 목적과 사적논리

Adler 학파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신념을 사적논리(private logic) 혹은 개인적 진리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논리(common logic)와 반대의 개념으로 자기에게는 그 신념이 논리적이고 이해되지만, 타인에게는 비논리적 혹은 비상식적인 것을 말한다. 사적논리(private logic)는 생활양식의 기초가 되는 생의 중심철학으로,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나 자신과 타인, 세계를 형성하는 원초적 개념이며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능을 가진다(김춘경, 2018; Dinkmeyer, Pew, & Dinkmeyer, 1979).

Adler는 자신의 두려움 극복 경험을 통해 생의 초기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왜곡된 인지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아동기 등갯길에 묘지를 지나야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며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수십 번이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묘지 근처를 뛰어 지나갔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30년 후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 묘지가 있었다는 인식은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하여 인지적 노력으로 무의식 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심리치료에 활용하게 된다. Adler는 개인의 사적논리에 존재하는 오류로 인해 부적응적 행동과 감정이 야기된다고 보았고, Young도 초기 부

적용 도식이 자기-패배적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고 생애 초기에 시작된 후 일생 동안 반복된다고 하였다(Adler, 1958; Schultz & Schultz, 2005; Young, Klosko, & Weishaar, 2011).

만약 약속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가 항상 지각하는 목적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늦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수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자신이 바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 함이며, 셋째, 자신이 자기 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타인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려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Adler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서나 감정까지도 사적논리에 맞춰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적논리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논리와 맞지 않을 때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Adler 이론을 적용한 화병 사례 연구의 경우 내담자들은 사적논리에서 현실적 자기개념과 이상적 자기개념 사이의 큰 불일치, 과잉일반화나 인지적 오류 및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은하, 2015; 김춘경, 2018; Clifford & Baumer, 2000; Mosak, 1989; Mosak & Maniacci, 2008).

##### 5) 허구적 목적의 한계와 기독교상담적 대안방향

Adler 상담이론에서 개인은 목표 추구를 위한 일정한 패턴들에 따라 움직이는 역동적이며 통합된 유기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위의 목적과 통일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Adler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규정한다. 목표지향성이란 인격의 본성이며, 개인의 목표를 알게 되면 그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또 행위란 인식의 영역에 있어 경험했던 대로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표 지향적 유기체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종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 그러한 행동은 개인적 자존감이나 중요성 또는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의 행동을 지속한다고 볼 수 있다(Allport, 1950; Rogers, 1951).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초기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은 '나는 돌보는 삶을 살 것이다.' 또는 '잘 돌보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다.' 라는 사적논리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양식에서는 돌봄의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누구보다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려는 허구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Adler의 생활양식 유형 가운데 지배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돌봄을 통한 지배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경우 겉으로는 타인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무의식적 동기 속에는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난 또는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중요한 대상들과의 관계마저도 자신의 사적 논리나 핵심신념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대상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돌봄을 입증할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돌보는 자신이나 돌봄을 받는 대상 모두가 불편하고 심하면 파국적인 관계로 치닫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의 허구적 목적은 생의 초기에 경험한 사건들 중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기억들을 선별하여 갖게 된 초기기억에서 핵심이 되는 사적논리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 부적응적인 생활양식으로 연결되면서 형성된다. 그리고 인지나 사고, 정서반응, 행동양식 및 대인관계 방식에서 문제를 유발하며, 개인이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속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의 경향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 혹은 타자 중심적 삶의 목적으로 점점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단순히 내담자의 당면문제 해결이나 정서적 치유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내담자의 전

반적인 삶의 목적이 더욱 성숙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유와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기기억의 왜곡된 사적논리로 인해 형성된 허구적 목적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목적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허구적 목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합한 소명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3. 허구적 목적(fictional finalism)에서 소명적 목적(calling finalism)으로의 전환

#### 1) 소명적 목적의 기독교상담적 함의

기독교의 진리는 복합인지의 핵심, 즉 인지적 오류를 진단하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치료와 기독교상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성경은 왜곡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 되며, 특별히 내담자의 왜곡된 인지도식의 근저에 있는 핵심신념은 신앙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적절하게 핵심신념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다(McMinn, 1988; 김준,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허구적 목적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명적 목적(calling fin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소명(calling)이라는 개념은 종교적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영어로 vocation(직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ocare(부르다)에 기원을 두는데, 현재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일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소명이란 특정 직업 뿐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위치나 신분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

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영역이며 소명을 따르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엄진섭, 2006; Calvin, 1993; Dik & Duffy, 2009; Stephens, 2012).

최근의 연구들은 소명에 대하여 기존의 종교적 프레임의 시각보다 더 확대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소명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지각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적 이로움을 염두에 두며 삶의 의미와 목적 부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소명이란 자기를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을 경험하는 것이며, 삶에서의 특정 역할을 어떤 목적이나 의미(purpose or meaningfulness)를 지향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친사회적 지향 가치와 목표를 주요한 동기부여 근원으로 갖는 것이다(신윤정, 2013; Dik & Duffy, 2009; Hall & Chandler, 2005).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모습으로 드러질 때에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된 일차적 소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일차적 소명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차적 소명, 즉 직업을 향한 부르심도 하나님의 인격적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대사로써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Brennfleck & Brennfleck, 2006; Guinness, 1998; Tripp, 2007). 하나님께서는 요13:34-35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이나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초월적 만남을 통한 사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재적으로 받으면서 성육신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김성환, 2014).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타자 지향적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각 개인의 직업 등 이차적인 소명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다 근원적인 일차적 소명이 될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단순히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 치유, 개인적 변화나 성장을 넘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적 치유와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과 연관된다. 전인적 치유와 성장이란 한 개인의 영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정신적 차원, 사회 문화적 차원이 성경적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독교상담자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새로운 존재(new-being)로써 사고, 정서,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내담자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인 사적논리로 인하여 형성된 비성경적 삶의 목적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합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김성환, 2006; 박윤정, 2012; 오윤선, 2007; Clinebell, 1990).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앞선 논의와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명적 목적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소명적 목적이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자기를 넘어서 친사회적 가치성향을 지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존재적 가치대상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

### (1)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의 필요성

Adler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타자 지향적인 삶을 영위하는가가 한 개인의 정신 건강과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기여와 협동으로 보았다. 한 개인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여와 협동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Ansbacher, 1968).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서 Adler의 허구적 목적 부분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내담자의 자기중심적이며 왜곡된 사적논리로 말미암은 부적응적인 허구적 목적에서 벗어나 적응적 목적으로의 연계적 전환을 이루도록 돕는데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적응적인 목적으로의 연계적 전환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초기경험으로 말미암은 사적논리의 자기중심적 틀에서 벗어나 기여와 협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는 성숙한 인격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의 목적이 단순히 내담자의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의 치유, 당면문제 해결이나 적응력의 극대화를 통한 개인적 변화나 성장을 넘어,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적 치유와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소명적 목적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이나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사랑을 누리며, 친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존재적 가치대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사적논리로 말미암은 부적응적인 허구적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소명적 목적으로 연계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 연계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허구적 목적 자체가 아무리 부적응적이라 하더라도 사적논리에 근거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강한 틀이므로 그것에 대한 완전한 배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허구적 목적이 고유한 초기경험으로 인한 사적논리와 연관되어 한 개인의 인격과 생활양식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개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허구적 목적을 그에게 주어진 소명적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징검다리로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자 한다.

#### (2)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의 방안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의 초기경험에 근거한 사적논리를 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Adler는 생애 초기인 약 8세까지의 경험들 가운데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기억들을 중심으로 사적논리의 기본적 골격이나 원형적 패턴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혹은 성인 초기까지의 기억 조각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사적논리가 발달단계와 연관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 혹은 변주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개인이 지닌 허구적 목적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더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Adler의 허구적 목적을 기독교상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내담자가 지닌 허구적 목적을 찾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소명적 목적의 흔적을 찾는 데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내담자의 소명적 목적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지닌 신앙적 경험의 기억조각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담자의 신앙적 기억조각들 속에서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나 마음에 와 닿은 성경 구절, 신앙 안에서 발견되어진 재능이나 은사, 신앙과 연관된 개인적 비전 또는 꿈, 주님과 의 인격적 만남 체험 등을 통해서 개인의 소명적 부르심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체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내담자가 당면한 어려움 및 주 호소문제와 상담 목표 등을 파악한 후 내담자의 생애 초기부터 성인기 초기까지의 기억조각 여행을 통해 어떠한 사적논리 및 허구적 목적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한다(백현숙, 2018). 그 다음으로 당면문제와 허구적 목적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허구적 목적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부작용, 그것이 지니고 있는 비기독교적 요소까지도 깨달을 수 있고 소명적 목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통찰되면 비로소 허구적 목적에서 소명적 목적으로의 연계적 전환을 위한 작업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각각의 기억조각에는 소명적 목적의 흔적이 있기 마련이므로 상담자는 이 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허구적 목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단순명료하게 소명적 목적의 청사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앞에서 얘기한 소명적 목적의 함의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친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재적 가치대상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육신적 삶을 살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한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준 기본적인고도 핵심적 소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Adler가 얘기한 친사회적 지향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고, 하나님의 소명적 목적의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나 삶과 관련된 허구적 목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적 목적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과 변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청사진, 즉 소명적 목적에 이르기 위해 내담자가 할 수 있는 적용리스트를 찾도록 한다. 허구적 목적의 틀 속에서 지금껏 애쓰며 살아온 자신에게 공감과 위로의 편지를 쓰도록 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각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껏 허구적 목적의 틀에 갇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인지·정서·행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에 대해 회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한다. 또한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원들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고백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상담을 종결하게 된다.

#### 4.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전환적 적용상담 사례연구

허구적 목적과 소명적 목적을 연계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적용한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상담과정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기억조각 여행을 통한 허구적 목적의 탐색과정과 소명적 목적의 연계적 전환을 통한 기독교상담적 치유와 변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상담과정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1) 내담자 기본 인적사항

내담자는 현재 42세의 여교사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출석하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으로 섬기고 있다. 남편과는 연애로 결혼한 지 16년째 되었으며, 남편은 45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의 성화

로 마지못해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다. 자녀는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다.

## 2) 주 호소문제

결혼 후 1, 2년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겹돌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다가 최근엔 가끔 외박도 하는 등 부부사이의 불화가 심하며, 이들은 중 1 여름방학 때 약 1주일 간 가출하여 일탈 청소년들과 어울린 이후 방학 때면 가끔 가출하더니 중 3이 되면서 학교에 안 가고 휴학하겠다고 하며 엄마인 내담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 3) 상담 진행과정

본 내담자에 대한 상담은 2017년 11월 첫째 주부터 2018년 3월 둘째 주까지 총 16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담자의 신앙력을 간략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때 과자나 사탕을 받기 위해 몇 번 교회에 나간 경험이 있고, 이 후 중학교 올라가서 친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담자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도 하는 등의 신앙적 경험과 배경이 있어 본 연구의 상담 임상적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할 수 있다.

### (1) 관계형성 및 기본 탐색과정

내담자와 라포 형성 후 현재 직면한 어려움 및 주 호소문제, 문제의 근본 원인 등 전체적인 윤곽을 탐색하였다. 내담자는 리더십이 강하고 남성적인 면이 두드러진 성격으로 우유부단한 남편에 대해 결혼 초부터 불만이 많았으며, 남편 역시 여성적인 애교나 따뜻함이 없는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취미생활을 핑계로 밖으로 도는 일이 많았고 종종 외박을 하는 등 부부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게다가 내담자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현재 중 3인 아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하고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으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빼먹고 PC방에 가는 등 반항적으로 변하더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예 일탈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다가 최근에는 학교를 휴학하겠다고 하여 어머니 내담자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 기억조각 여행을 통한 허구적 목적 탐색

내담자의 초기기억에서 형성된 사적논리 및 허구적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기억조각을 탐색하였다. 생애 초기기억들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기억조각 여행에 대해 내담자는 매우 흥미로운 태도로 임했다. 가난한 농촌에서 딸부자집의 다섯 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들을 바라던 어머니는 갓 태어난 내담자가 딸인 것을 알고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엎어놓은 채로 방치했으며 옆집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내담자의 어머니를 설득해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다고 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한량으로 술과 노름, 외도 등을 일삼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농사와 집안일로 항상 찌들어 있어서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5세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며, 6세 무렵에는 마루에서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여자가 재수 없게 말대꾸 한다’며 밥상을 엎어버리자 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마당에 쏟아진 밥상을 치우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시기에 아버지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가자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도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5촌 당숙이 계집애가 말대꾸한다며 내담자의 뺨을 때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고 무기력하게 혼잣말로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던 기억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남자애들이 잘난 척하는 게 너무나 싫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옆 반 남자애가 내담

자의 친한 여자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코피를 쏟도록 때려 주었던 일도 있으며 누구에게든 지고 싶지 않아 죽어라고 공부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했다.

이 내담자의 기억 조각들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부당하게 여자를 학대한다.’ 또는 ‘여자가 연약하면 남자에게 짓밟히며 당하고 살게 된다.’는 사적논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사적논리에 의해서 ‘나는 남자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힘 있는 존재가 되어 남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허구적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 (3) 당면문제와 허구적 목적과의 연관성 찾기

이렇게 형성된 내담자의 허구적 목적이 내담자의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당면한 문제와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결혼 이후의 생활과 관계패턴을 탐색하였다.

대학시절 호탕하고 남성적인 면 때문에 내담자는 남자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그 중 한 명인 남편은 순하고 내담자가 하자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주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자꾸 우유부단하고 무력하게 느껴져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일이 잦았고, 남편 또한 아내가 애교도 없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이 늘다가 점점 밤늦게 또는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도 잦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화마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1등을 할 것을 강요했는데 아들은 이에 부응하듯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반장을 하고 성적도 반에서 1등을 했으나, 5학년이 되면서부터 반항적으로 변하더니 현재는 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벗어나고 있는 데다 내담자와 말도 하지 않는 등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형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은 아직까지는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 있지만 언제 관계가 틀어지게 될지 내담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내담자가 가진 ‘나는 남자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힘 있는 존재가 되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남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허구적 목적이 내담자의 관계패턴과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으며 어떤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 또는 어머니를 부당하게 학대하던 남자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허구적 목적으로 인해 결혼 대상을 선택할 때도 만만하게 느껴지는 남자를 선택했으며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허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허구적 목적을 깨닫게 됨은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부작용, 그리고 비기독교적 요소까지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적 목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 (4) 허구적 목적에서 소명적 목적으로의 연계적 전환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기억조각들 속에 담긴 소명적 목적의 흔적을 찾아내어 자신의 허구적 목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소명적 목적으로 연계적 전환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이 사례에서 내담자의 신앙적 체험과 관련된 기억들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자신은 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는데 엉뚱하게도 어머니를 학대하던 아버지와 부당하게 자신을 때리던 5촌 당숙의 모습이 떠오르던 장면이 나온다. 이후 내담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 활동도 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꿈에도 바라던 교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은 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부모님과 5촌 당숙의 선물을 사서 시골집을 찾아가다. 내담자에게 있어 교사가 되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던 남자들에 대한 복수인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명적 목적은 사람들을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육신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나님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자세에 대해 에베소서 5장 22-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고 하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담자는 ‘나는 남자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힘 있는 존재가 되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남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허구적 목적에 따라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사랑하는 존재적 가치대상으로 대하거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자들을 통해 받은 상처로 인해 형성된 허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가치대상인 동시에 복수의 대상으로 대했던 것이다. 내담자의 남편은 애교나 따뜻함, 부드러움이나 순종하는 자세는 전혀 없이 자신을 무시하며 항상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아내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그 아내가 싫고 부담스러워 집을 멀리하며 밖으로 걸들게 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복수하는 대상으로, 또한 자신의 한을 풀 도구로서 아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아들은 엄마의 태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 것이다.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담자는 성장과정의 상처로 인해 형성된 사적논리와 왜곡된 허구적 목적으로 말미암아 남편이나 아들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나 응어리 때문에 형성된 허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 가치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기억조각 여행을 통해 내담자가 성장과정에서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 이러한 허구적 목적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아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앙적 체험과 관련된 기억조각 여행을 통해 내담자의 아픔과 상처를 붙잡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교사의 꿈을 갖게 하셨으며 그것을 이루도록 하신 점,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였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담자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러한 허구적 목적까지 만들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얽어매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자기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안아주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허구적 목적에서 소명적 목적으로의 연계적 전환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내담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찾아보며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40절 후반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내담자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듯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자녀에 대해 존재 자체로 받으며 순종하며 상처를 안아주며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적 목적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도록 도왔다. 그러자 내담자는 자신의 성장과정의 상처로 말미암아 왜곡된 허구적 목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남편과 자녀를 대하며 살아 온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명적 목적의 안경으로 자신의 허구적 목적에 근거한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스스로를 남편과 아들에 의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내담자는 자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가해자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 (5) 적용과 변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하나님의 청사진, 즉 소명적 목적에 이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적용 리스트를 찾으려 하였다. 허구적 목적의 틀 속에서 지금껏 애쓰며 살아온 자신에게 공감과 위로의 편지를 쓰도록 하고,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각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허구적 목적의 틀에 갇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왜곡된 사고와 정서를 통해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 회개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족들과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원들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하나님의 소명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을 종결하였다.

### III. 닫는 글

지금까지 우리는 Adler 이론에 근거한 허구적 목적의 의미를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허구적 목적의 전모를 이해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적 목적에 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기독교 상담의 이론적 근거 및 실제 상담과정을 살펴보았다. Adler는 한 개인의 성숙의 의미를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타자 지향적인 삶과 사회적 가치 지향의 삶을 사는 것과 연관 지어 이해하였다. 그러나 생애 초기의 인간은 나약해서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맞서거나 이겨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초기기억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상처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무력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외부 자극들을 생존의 위협으로 자각한 개인은, 이후에 보다 안전한 삶을 위해 개인적인 진리, 즉 사적논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모든 삶의 방향은 허구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각 개인의 초기경험과 성장과정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허구적 목적은 때로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한 개인을 자기중심의 성 안에 갇히게 하여 인간관계나 사고 또는 행동을 부적응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에 의해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데 급급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독교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하나님의 소명적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기독교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허구적 목적을 단지 적응적 목적으로 전환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허구적 목적과 당면문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허구적 목적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를 이해 공감하고 안아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내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각 정황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적 목적을 깨닫게 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허구적 목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상담 이론적 근거와 하나의 접근방안을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김미란 (2006). Adler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환 (2006). 전인치유를 위한 내적치유에 대한 목회상담적 고찰. *성경과 상담*, 6, 7-9.
- 김성환 (2014). *꿈이 있는 치유*. 대전: 그리심어소시에이즈.
- 김소영, 오미경 (2016). 뇌교육기반 실천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9(18), 67-92.
- 김은하 (2015).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화병 사례 연구: 화병, 우울, 심리적 안녕감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20(4), 481.
- 김 준 (2018). 기독교상담과 인지치료. *복음과 상담*, 26(2), 62-63.
- 김준수 (2016). Adler의 생활양식 분석과 기독교적 평가. *복음과 상담*, 24(1), 75-86, 88-95.
- 김춘경 (2018). *아들러의 인간관계론*. 서울: 학지사.
- 김필진 (1997). 아들러 심리학과 목회상담. *신학과 문화*, 6, 256-257.
- 김필진 (2001). 아들러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본원리와 상담 방법. *신학과 문화*, 10, 236-237.
- 김필진 (2007).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 노안영 (2016). *불완전할 용기*. 서울: 솔과학.
- 박윤정 (2012). 기독교 상담자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 *복음과 상담*, 19, 160-161, 167.
- 백현숙 (2018). 초기기억중심의 Adler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11.
- 엄진섭 (2006). 루터의 소명관. *신학과 신앙*, 17, 18.
- 오익수 (2006). 초등학교생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1-15.
- 오윤선 (2007).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 예영 B&P.
- 기시미 이치로 (2014). *미움받을 용기*. 서울: 인플루엔셜.
- Adler, A. (1958).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New York: Capricorn.

- Adler, A. (1969). *The Science of living*. NY: Anchor Books.
- Adler, A. (2015a).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장병걸 역,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서울: 리베르. (원전 1931 출판).
- Adler, A. (2015). 인간이해(라영균 역, *Menschenkenntnis*). 서울: 도서출판 일빛. (원전 1927 출판).
- Allport, G. W. (1950). *The Nature of Personality*. Reading, MA: Addison-Wesley.
- Ansbacher, H. L. (1967). Life Style: A History and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3 (2), 191-212.
- Ansbacher, H. L. (Ed). (1968). The Concept of social interes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4, 131-141.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Hg.). (1972). *Alfred Adlers Individual psychologie*. Reinhardt München/Basel. 182.
- Ansbacher, H. L., & Ansbacher, R. R. (Hg.). (1982). *Alfred Adlers Individual psychologie*. Reinhardt München/Basel. 182.
- Brennfleck, K., & Brennfleck, M. (2006).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강선규 역, *Live Your Calling*). 서울: IVP. (원전 2004 출판).
- Bruhn, A. R., & Davidow, S. (1983). Earliest memories and the dynamics of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476-482.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 (3), 427.
- Calvin, J. (1993).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Book 3, Ch 6.
- Chandler, C. K., & Willingham, W. K.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arly childhood family influence and the established life-style.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42, 388-394.
- Clark, A. J. (2002). Early recollections: *Theory and practic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Routledge.
- Clark, A. J. (2017). 아들러심리학에 기반을 둔 초기회상(박예진 · 박상규 공역, *Early Recollections*). 서울: 학지사. (원전 2002 출판).
- Clifford, J., & Baumer, G. (2000). *Introduction to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the essential guide*. S Palmer: books.google.com.

- Clinebell, H. J. (1990). *현대목회상담신론*(박근원 역, *Basic Typer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66 출판).
- Corey, G. (2017).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천성문, 권선중, 김인규, 김장희, 김창대, 신성만, 이동훈, 허재홍 공역,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therapy*).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1976 출판).
- Dinkmeyer, D. & Losoncy, L. (2012). *격려 기술*. 서울: 학지사. (원전 1996 출판).
- Dinkmeyer, D. C., Pew, W. L., & Dinkmeyer, D. C. (1979). *Adler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Dinkmeyer, D. & Sperry, L. (2004). *상담과 심리치료: Adler 개인심리학의 통합적 접근*(김춘경 역,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integrated, Individual Psychology approach*).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0 출판).
- Dreikurs, R. (1967). *Psychodynamics,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Collected papers*. Chicago: Alfred Adler Institute.
- Dreikurs, R., Grunwald, B. B., & Pepper, F. C. (2013). *아들러와 함께 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전중국 외 공역, *Maintaining Sanity in the Classroom*). 서울: 학지사. (원전 1998 출판).
- Guinness, O. (1998). *The Call*. Nashville, TN: Word.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2), 161.
- Hall, C. S., & Lindzey, G. (1975).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jelle, L. A., & Ziegler, D. J. (1998). *성격심리학*(이훈구 역, *Personality Theories*). 서울: 법문사. (원전 1981 출판).
- Hjelle, L. A. & Ziegler, D. J. (2006). *청소년상담*(김춘경 역, *Counseling with Adolescents*). 서울: 학지사. (원전 1981 출판).
- Lundin, R. W. (1989). *Alfred Adler's basic concepts and implication*. Muncie, Indiana: Accelerated Development.
- McMinn, M. R. (2008). *기독교상담과 인지요법*(정동섭 역, *Cognitive Therapy Techniques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 (원전 1988 출판).
- Mosak, H. H. (1971). *Life Style*. In A. G. Nikelly (Ed.). *Techniques for Behavior Change*.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osak, H. H. (1989). *Adlerian psychotherapy*. In R. J. Corsini & D.

- Wedding(Eds.), *Current psychotherapies*. Itasca, IL: F. E. Peacock.
- Mosak, H. H., & Maniacci, M. (2008). *Adlerian psychotherapy*. In R. J. Corsini & D. Wedding (Eds.), *Current psychotherapies*.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 Mosak, H. H., & Pietro, R. D. (2006). *Early recollections: Interpretative method and application*. New York: Routledge.
- McAdams, D. P. (1988).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ies into Identity*. The Guilford Press.
- Pomeroy, H., & Clark, A. J. (2015). Self-efficacy and early recollections in the context of Adlerian and wellness theory.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1 (1), 24-33.
- Rogers, C. R. (1951). *Client 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Mifflin.
- Rule, W. R. & Bishop, M. (2006). *Adlerian lifestyle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Routledge.
- Schultz, D. P., & Schultz, S. E. (2005). *Theories of Personality*. Thomson Learning.
- Schulz, O. (1990). *Theory of Personality*. Pacific Grove, CA. Brook/Cole.
- Smith, E. J. (2014). *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 Integrative Approach*. SAGE Publications, Inc.
- Stein, H. T. (2005). *The Collected Clinical Works of Alfred Adler: The general system of Individual Psychology*. The classical Adlerian Translation Projects.
- Stephens, J. L. (2012). The Effects of Calling, Career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Motivation to Lead. PhD diss, Regent University.
- Sweeney, T. J. (2005). *아들러 상담이론과 실제*(노안영, 강만철, 오익수, 김광운, 송현중, 강영신, 오명자 역, *Adlerian counseling: A practitioner's approach*). 서울: 학지사.(원전 1998 출판).
- Tripp, P. D. (2007).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황규명 역,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서울: 디모데. (원전 2002 출판).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11). *심리도식치료*(권석만 외 공역,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서울: 학지사. (원전 2003 출판).

【 Abstract 】

A review and applic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to Adler's fictional finalism

**Baeg, Hyunsook**

Kwangshi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fictional finalism based on Adler's theory from the Christian counseling point of view, and finding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in the field of counseling including it's practical methods of application. Adler argues that distorted fictional finalism as well as private logic originated in early recollection brings on one's maladaptive life styles and many difficult life problems.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Christian counseling, this study emphasizes on helping counselee's transition from life of fictional finalism to life of calling finalism in harmony with God's call and encouraging incarnated life of practicing Christ' love while getting out of self-centeredness and receiving others as existence themselves based on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us, this study tries to assist counselees to figure out the reality of their own fictional finalism, consequently, to embrace themselves, having no choice but to live in a fence of their own fictional finalism. In addition, by opening counselees' eyes to their own calling finalism through exploring the word of God and their journey of life, the researcher suggests theoretical basis of counseling and concrete approaches to help them live their lives worthy of God's call, freeing them from the framework of maladaptive of their fictional finalism.

**Key words:** fictional finalism, calling finalism, life style, early recollection,  
private logic